

월간 **이대업** 11월호

세상을 밝히는 등불 인문학을 켜자

자전거로 떠나는 힐링·이매방 선생 ‘초대석’ 등 풍성

“자기 자신의 삶을 살며 내가 삶의 주인이라는 근원적인 사유를 하는 것.”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강조하는 인문학의 알갱이다. 인문학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나 정작 인문학적으로 사유하고 삶을 추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월간 ‘에향’ 11월호에서는 주체적인 삶을 갈구하는 독자들을 위해 인문학 특집을 마련했다. 우리 사회에서 도도한 흐름을 만들고 있는 인문학의 실체와 광주에서 운영중인 ‘인문학당’, 인문학 스타 저술가와 학자들의 삶을 조명했다. 독자들에게 인문학 독서의 길을 터주기 위해 문학 전문가가 엄선한 추천도서 20권도 소개했다.

기획 ‘자전거, 가을을 달린다’는 힐링의 또다른 대안으로 떠오른 자전거를 조명한 특집물이다. 건강한 삶과 추억을 선물하는 자전거와 두 바퀴에 삶을 의지하고 있는 라이더들을 만났다. 광주·전남지역 명품 자전거 코스와 자전거 고르는 법, 기자가 직접 달린 북한강 중주 자전거길을 생생하게 담았다.

‘에향 초대석’에서는 ‘춤을 추다 생을 마감하는 게 꿈’인 이매방 선생의 아우라와 예술의 향기를 맡았다. ‘마주 앉은 책과 삶’에서 무릎을 맞댄 이주향(수원대 교양학부) 교수는 철학을 문학, 영화, 미술, 만화 등과 접목한 강의와 저술의 토대가 된 자신의 독서와 삶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줬다.

‘이달의 아티스트’ 코너에서는 ‘가을남자’ 김동규 성악가를 만나 대표작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의 탄생배경과 성악가로서 인생 이야기를 들었다. ‘문화화제’로는 42년 만에 개방된 화순 이서 적벽 현장을 둘러보고 가을 정취와 시민목객들의 자취를 더듬었다. 때마침 시민들에게 개방된 ‘한옥건축의 백미’ 최승호 고택의 풍경과 문화 공간으로서 가능성을 짚어봤다.

대하기획물 ‘신남도문화여지도’에서는 호남지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손꼽히는 광양의 도도한 역사와 문학,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광양 숯불구이를 조명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광주여성단체연합 ‘성평등문화제’ 개최

4일 광주서구문화센터

광주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하는 2014 성평등문화제가 4일 오후 7시 광주서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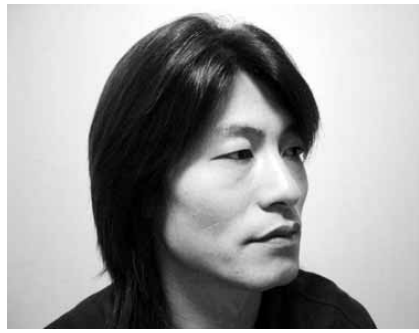
‘나와 너를 살리는 일 평등·평화·공동체 꽃을 피우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서는 노래와 연극, 시가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인다.

푸른연극마을 이당금 대표가 총연출을 맡았고 여성 단체 회원들이 참가한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이번 문화제를 통해 여성들이 해내는 다양한



일들의 의미를 돌아보고 제 가치를 되돌려주기 위해 발걸음을 떼고자 한다”고 말했다. 티켓 가격 1만원. 문의 062-361-6078. /김미은기자 mekim@



▲무대 미술가 **故 이대업**씨.

▶**故 이대업**씨가 무대 미술가로 참여한 ‘2013 전국 무용제’ 대통령상 수상작 서명무용단의 ‘작침’.



무용을 사랑한 ‘故 이대업’ 그가 그림다

전남대 미대 출신, 무용 전문 ‘무대 미술가’

전국무용제 ‘휴먼 플라나리아’ 공연 전날 타계

세트 맡은 지역 작품 대통령상만 5차례 수상

“디자이너서 제작까지…공간 구성감 뛰어난 작가”

리한 그는 “함께 공연을 마무리하지 못해 안무가 선생님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가족에게 남겼다.

이씨는 전남대에서 조각을 전공했다. 그가 무대 세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그와 20여년간 함께 작업해온 연출가 조주현씨 권유 덕이었다. 당시 무용 대본을 쓰고 연출을 하며 무용쪽에서 활동하던 조씨는 한 전시회에서 이씨의 작품을 보고 “이런 느낌으로 세트 작업을 해 보면 어떨겠냐”는 이야기를 던지시 건넸다.

조씨가 연출한 한국무용 작품을 통해 처음 무용 공연을 접한 그는 평면을 입체로 만들어내는 조각가의 특성이 무대 디자인과 잘 어울리겠다고 싶었다. 많은 공연을 보러 다녔고, 무대 뒤에서 세트와 디자인을 유심히 살폈다. 하지만 ‘지역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발목을 잡았다. 이씨는 전에 그림을 그려 가는 단순한 세트에서 벗어나 실험적인 무대를 많이 선보였다. 무용 공연의 생명인 조명 등 무대 매커니즘에 눈을 뜬 2000년부

터 조금씩 무용인들 사이에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지난 2002년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의 ‘전불, 그 천년을 꿈꾸다’를 통해 광주 무대에 데뷔한 그는 이후 ‘물·밀·꽃·잎’(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 ‘레밍턴’(광주현대무용단), ‘티핑포인트 37.5’(광주로얄발레단), ‘자매부’(광주현대무용단), ‘작침’(서명무용단) 등으로 5차례 대통령상을 받았다. ‘티핑포인트 37.5’로는 무대기술상도수상했고 올해는 공로상을 받았다.

“연극이나 뮤지컬은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세트를 만들어내야한다. 반면 무용은 어떤 작품에서 장면의 이미지를 추상적으로 다양하게 해석해야하는데 이 선생은 조소를 전공해서 그렇지 무엇보다 공간 구성감이 굉장히 좋았다. 또 무용의 경우 무대 전환이 굉장히 빠르는데 그에 걸맞는 최적화된 세트를 만들었다.”

연출가 조주현씨는 “이 씨의 장점은 또 무대 디자인에 그치지 않고 세트를 직접 제작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도면을 대형 세트제작센터에 넘기는 디자이너들과 달리 직접 세트를 만들었다. 대학 후배인 아내와 함께 작업해 왔다.

지난 2003년 이씨를 인터뷰 한 적이 있었다. 작업 초창기 무대세트가 공연 중 쓰러져 버린 일, 무대 세트 만드는 ‘아저씨’에서 ‘선생님’으로 호칭이 바뀐 일, 무대 디자인은 결국 아이디어 싸움이라는 이야기 등이 당시 기사에 담겼다.

“작업을 계속하다보니 무용 자체가 좋아졌어요. 몸 동작 하나 하나가 참 멋지더라고요. 광주는 아직도 무대 세트에 대한 인식이 열악하죠. 어른들은 좀만 잘 하면 되지 세트가 무슨 상관이나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른 지역 젊은 춤꾼들과 많이 작업하는데 우리 지역 젊은 무용수들은 좀처럼 무대를 갖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제 광주 무대에 데뷔했으니 지역 예술인들도 멋진 작업을 펼치고 싶습니다.”(2003년 이대업 인터뷰 중)

김미숙 광주무용협회장은 “이 선생님의 작품은 무대 위에서 언제나 빛이 났다”고 말했다. 박선희 안무가는 “연출자, 안무가와 끊임없이 논의하고 수많은 디자인과 미니어저 등을 보여주며 안무가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지역 무용인들과의 작업을 사랑했던 그는 이제 세상에 없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외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브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 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2111.com



1·2층 이태리가구



3층 통원목가구



4층 모던가구



5층 던롭침대

30%▶

홍스제이 SINCE 1990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

☎1899-0240

세계 최고 던롭침대 1년
한번 세일 11월 16일까지